

<여천공단의 오늘과 내일 - ①환경오염>

환경오염은 갈등을 잉태하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80년대 후반의 호황을 바탕으로 97년 투자가 전면 자유화됐고 이후 경쟁적인 신증설에 힘입어 규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여천공단의 환경오염 시비처럼 「과연 주민이 살 수 있는 땅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줘야 하는 처지로 돌변했다.

여천공단 문제는 환경정책의 최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과 산업의 조화」라는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도외시한 정부의 무분별한 투자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천공단 방출 위험물현황

구 분	기업수	위험물질
유 독 물	33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포스겐, 염화수소, 페놀, 메탄올, 산화에틸렌, 톨루엔
고압가스	30	염화비닐, 부타디엔, 에틸렌, 프로필렌, LPG, 질소, 산소, 수소
위험물	71	휘발유, 알코올류, 탄화갈슘, 나프타, 에테르, 알킬알루미늄

주) KIST 용역보고서

여천공단의 폐기물 발생현황(광주환경청)

(단위 : 100만달러, %)

분류코	특정폐기물	1992	1993
0100	폐산	-	0.01%
0200	폐알칼리	0.01%	0.001
0300	폐유	0.39	0.50
041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1.45	0.32
0420	비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5	0.32
0510	폐합성수지	2.06	0.52
0520	폐합성섬유	0.0001	0.00001
0530	폐합성고무	0.04	0.02
0560	기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0.07	0.22
0600	폐석면	0.01	0.01
07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008	0.0028
0911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0.0004	-
	폐사의 유해물질		
1111	소각잔재물	0.003	0.036
1300	폐촉매	0.017	-
1306	6가크롬	0.001	0.002
1311	기타 유해물질	0.015	0.003
14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0001	0.0001
1710	폐수처리오니	1.94	2.20
1720	공정오니	0.19	0.09
1800	폐석고	93.35	95.54
1900	폐석회	-	0.002
폐기물 총발생량 : 1,746,815.9톤(1993)			
1,778,523.52톤(1992)			

주요 국가별 중금속류의 수질환경 기준

국 가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한 국	0.01	0.05	ND	ND	0.1	0.05
프랑스	0.005	0.05	0.05	-	0.05	0.05
일 본	0.01	0.05	ND	0.0005	0.1	0.05
미 국	0.01	0.05	0.005	0.002	0.05	0.05

주) KIST 용역보고서

안전지표 산출을 위한 대상 항목별 가중치

대상항목	가중치
Acrylonitrile	10
Benzene	10
Butadiene	10
Butane	10
Butene	10
CH ₄	10
COCl ₂	200
Cl ₂	200
Ethyl mercaptan	10
Ethylene	10
Ethylene Oxide	20
Ethylene dichloride	10
Formalin	200
H ₂	10
H ₂ O ₂	20
H ₂ SO ₄	20
HCl	20
HNO ₃	20
Hydrazine	20
Iso Butane	10
MDI	10
NH ₃	100
Phenol	10
Propane	10
Propylene	10
SO ₂	100
TDI	100
Titanum Trichloride	200
VCM	10

주) KIST 용역보고서

여천시는 91년 공해 및 어패류 폐사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환경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인식, 그

영향을 지수화하기 위해 KIST에 용역을 의뢰했고, KIST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된 96년2월 이후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실태는 급기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대책안을 내놓은 96년8월 현재까지도 여천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따라 여천공단 문제는 이미 단순한 환경차원을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이전 매듭」이라는 대전제하에 졸속 처리하려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한껏 과시해 보려는 여천시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주민 이주문제가 오염피해지수가 높은 인근 3개마을에 대한 집단이주로 거의 확정되면서 비용 부담문제가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KIST의 환경평가

여천공단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91년부터 검토되어 93년6월 관선시장 시절 KIST에 의뢰됐고 수질, 토양을 비롯한 8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물론 환경영향 평가가 관선과 민선을 거치면서 양과 질 측면에서 상당부분 심도가 깊어진 감을 느낄 수 있다.

여천공단 주변토양 오염지수

지 역	기준치 초과 오염					오염등급지수
	pH	아연	납	비소	중점	
상암동	-3	0	-0.5	-2	-5.5	E
삼일동	-3	-1	0	-2.5	-6.5	E
화치동	0	-2	0	-1	-3	D
주삼동	-1	-1.5	0	-2	-4.5	E
월내동	-2	-2.5	0	-2	-6.5	E
낙포동	-1	-1	0	-2	-4	E
묘도동	-3	-0.5	0	-1.5	-5	E
여천동	-3	0	-0.5	-0.5	-4	D

A: 좋음 B: 보통 C: 조금나쁨 D: 나쁨 E: 아주나쁨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실태

분야	측정요목	단위	기준	최고측정치	비 고
대기	클로르포름	ppb	0.072	0.58(8배)	※ 84년
	스타이렌	"	0.277	10.6(38배)	울산 측정치
	불화수소	ppm	0.01	0.167(17배)	수은 불검출
	황화수소	"	0.2	3.843(19배)	이산화질소
	페놀	"	0.025	0.41(16배)	0.05(미달)
	이산화질소	"	0.08	0.134(1.7배)	불화수소
해양	부유물질	ug	200	310(1.6배)	0.031(3배)
	수은	ppm	불검출	0.000286	페놀
	BOD	"	10	24(2.4배)	0.106(4배)
	COD	"	2	3.4(1.7배)	COD
소음	주거지역	dB	55/45	72.11/68.28	2.75(1.3배) 주/야

주) KIST 용역보고서

특히, 입주기업들도 하나같이 『관선때 용역이 의뢰되긴 했으나 그때는 환경문제에 따른 이주가 아닌 단순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량화에 목적이 있었다』며 집단이주로 결론을 내린 KIST의 보고서를 정치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

KIST의 보고서는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및 오염수치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되는 수은이 여천 해안에서 0.286ppb(1ppb는 1/1000ppm)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극히 소량으로도 마비나 언어장애를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세한 양이라도 바다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중금속에 해당한다.

84년 환경오염으로 집단이주하게 된 울산·온산공단에서도 수은만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기중에 노출됐을 경우 심장과 신장, 호흡기 등에 작용해 심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른다는 클로르포름이 0.58ppb(미국 허용기준치의 8배), SM이 10.6ppb(미국 허용기준치의 38배) 검출됐으며, 이외에도 불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17배(울산공단 대비 3배), 황화수소 19배, 페놀 16배(울산공단 대비 4배), 부유물질 1.6배, 이산화질소 1.7배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바닷물에서는 수은 외에 BOD가 24ppm으로 허용기준치의 2.4배, COD가 3.4ppm으로 허용기준치의 1.7배(울산공단 대비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온산공단의 오염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33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에틸렌(연간 150만톤), 프로필렌(35만5000톤), 부타디엔(15만9000톤), VCM(45만톤) 등은 10Kg만 유출되어도 인근 마을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게 되며, 1톤정도가 유출될 경우에는 여천시내까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여천공단의 악취 발생물질 측정결과

위 치	항목 (ppm)	1차			2차			3차			4차		
		4/13	4/14	4/15	8/19	8/20	8/21	1/17	1/18	1/19	5/23	5/24	5/25
중 흥	NH ₃	0.078	0.025	0.045	0.789	0.202	0.072	0.200	0.294	0.716	0.261	ND	0.213
	H ₂ S	0.801	1.320	0.977	1.336	1.925	1.042	3.843	1.599	2.260	0.012	0.429	0.037
	HF	-	-	-	-	-	-	0.034	0.042	0.023	-	-	-
상 압	NH ₃	0.174	0.280	0.146	0.739	0.330	0.935	1.830	0.840	0.305	0.655	0.187	0.461
	H ₂ S	0.670	0.027	0.351	0.440	0.390	0.121	1.428	0.329	0.239	0.023	0.080	0.019
	HF	0.020	0.213	0.057	0.011	0.006	0.004	0.002	0.002	0.005	ND	0.001	0.001
남 수	NH ₃	-	-	-	-	-	-	-	-	-	-	-	-
	H ₂ S	-	-	-	-	-	-	0.167	0.150	0.329	-	-	-
	HF	0.018	0.009	0.011	0.012	0.004	0.005	0.009	0.038	0.050	0.018	0.032	0.021
창 천	NH ₃	-	-	-	-	-	-	0.385	0.003	0.090	-	-	-
	H ₂ S	-	-	-	-	-	-	0.104	0.067	0.495	-	-	-
	HF	0.009	0.013	0.167	0.010	0.016	0.043	0.060	0.006	0.010	ND	ND	ND
화 장	NH ₃	-	-	-	-	-	-	-	-	-	-	-	-
	H ₂ S	-	-	-	-	-	-	0.213	0.113	0.038	-	-	-
	HF	-	-	-	-	-	-	0.024	0.024	0.007	-	-	-

주) KIST 용역보고서

여천공단의 용수사용량 및 폐수발생량 현황

(단위 : MT/일)

공 업 용 수			공 업 폐 수		
순위	공 장 명	사용량	순위	공 장 명	발생량
1	한전여수화력	1,971,688	1	남해화학	114,867(8,227)
2	남해화학	132,330	2	LG화학 화치공장	9,620
3	호남석유화학	25,509	3	호남석유화학	7,485
4	대림산업 제1공장	21,793	4	LG정유	5,720
5	LG화학 화치공장	19,800	5	제일모직	3,080(1,483)
6	LG석유화학	12,453	6	금호석유화학 1공장	2,500
7	LG정유	10,900	7	대림산업 1공장	2,210
8	LG화학 VCM공장	4,662	8	LG화학 SM공장	1,400
9	삼남석유화학	4,480	9	럭키석유화학	1,250
10	금호석유화학 2공장	4,300	10	금호이피고무	1,222
11	금호석유화학 1공장	3,900	11	LG화학 VCM공장	1,068
12	LG화학 SM공장	3,500	12	한국화인케미칼	873
13	제일모직	3,430	13	금호셀화학	827
14	LG화학 카본공장	3,000	14	한양바스프우레탄	800
15	럭키MMA	2,726	15	삼남석유화학	700
16	금호셀화학	2,540	16	금호몬산토	700
17	금호이피고무	1,851	17	한전여수화력	471(466)
18	한국화인케미칼	1,840	18	한전호남화력	294(25)
19	호남화력발전소	1,072	19	럭키MMA	280
20	한양바스프우레탄	1,000	20	LG화학 카본공장	280

주) KIST 용역보고서

보고서는 여천공단내에서 94년말까지 6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587명이 피해(사망 47명, 재산 피해 328억원)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사고원인은 90%가 취급부주의로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그만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질 및 수자원

여천공단 주변마을은 음용수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나 간이상수도에서 대장균과 일 반세균이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또 지하수 시료에서는 철이온, 황산이온, 납이온 등이 음용수 질 기준을 초과했다.

여천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유입현황(1995.2)

(단위 : m³/월)					
순위	회 사 명	배출량	순위	회 사 명	배출량
1	LG화학	233,991	18	삼남석유화학	11,807
2	남해화학	297,616	19	여천환경	687
3	한화종합화학 1공장	116,033.6	20	LG석유화학	23,339
4	금호셀화학	54,623	21	한화바스프우레탄	35,637
5	금호이피고무	29,775.6	22	금호미쓰이도아쓰	322
6	금호석유화학 1공장	69,820	23	한화종합화학 2공장	67,025
7	호남석유화학	163,097	24	LG MMA	7,797.6
8	LG정유	177,623	25	LG SM공장	2,941
9	대림산업 1공장	46,299	26	금강	597.6
10	대림산업 2공장	14,819.8	27	재원산업	232
11	LG 카본공장	120.3	28	태원물산	392
12	LG VCM공장	33,282	29	남해산업	196
13	한국화인케미칼	28,414.9	30	벽산	587.3
14	호남화력발전소	410.0	31	금호석유화학 2공장	4,216
15	호성석유화학	3,026.3	32	대성환경 매립장	221
16	한국다우케미칼	192.3	33	대성환경	69
17	제일모직	66,315	합계		1,490,205.5(53,221.6)

여천공단의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에 대한 비교위험도

Material	남수	젯등	삼일	소호	화치	평여	창촌
Carcinogen							
Benzene	6.40	4.58	23.32	1.19	2.37	4.26	29.59
Carbon Tetrachloride	2.61	1.80	1.44	0.94	7.68	1.98	1.83
1, 3-Butadiene	5.85	0.00	6.10	1.72			
Chloroform		0.04	0.28		5.47	0.11	0.07
Trichloroethylene		0.02	0.07		0.06	0.05	0.00
Tetrachloroethylene	0.05	0.01	0.01	0.01	0.01	0.01	0.00
Nocarcinogen							
Stylene	0.03		0.00	0.00			
Trichloroethan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oluene	0.08	0.00	0.05	0.01	0.16	0.04	0.01
O-Xylene	0.21		0.06	0.02	0.01	0.01	
M-Xylene	0.04	0.00	0.01	0.00	0.00	0.00	0.00
P-Xylene	0.55	0.01	0.19	0.11	0.16	0.12	0.04
Ethylbenzen	0.01	0.00	0.01	0.00	0.00	0.00	0.00
	15.844	6.469	31.551	4.001	15.929	6.577	31.549

주) KIST 용역보고서

공단주변 마을 하천수의 수질오염은 중흥천과 남수천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고 대장균이 많이 검출돼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

또 카드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상암천 하류와 남수천 하류에서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납은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완화돼 있는 만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폐놀은 남수천 호남에틸렌 부근 하천에서 일반하천 검출량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검출돼 공장폐수가 하천수에 유입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토양 및 산업폐기물

상암동, 삼일동, 묘도동의 토양은 산성토양으로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조사지역의 토양에서 비소농도가 자연함유량 및 공단 평균값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가운데 월성마을 노인회관, 평여동 및 봉계동에서 채취한 지하수에는 아연, 크롬, 철, 납, 비소 및 세레늄 등의 중금속들이 함유돼 있어 먹는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주거지역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토양, 지하수, 산업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하천의 저니 및 산업폐기물 현황 등을 종합하면 공단주변 마을의 환경적 상태는 주민의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대기오염

여천지역은 지난 30년간 평균기온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강수량도 약간 많은 편이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악취 발생물질 중 황화수소가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암모니아와 불화수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보다 낮게 측정됐다.

여천공단의 발암물질에 대한 초과발암 위험도

Material	남수	잣등	삼일	소호	화치	평여	창촌
Benzene	6.40E-06	4.58E-06	2.33E-05	1.19E-06	2.37E-06	4.26E-06	2.96E-05
Carbon Tetrachloride	2.61E-06	1.80E-06	1.44E-06	9.44E-07	7.68E-06	1.98E-06	1.83E-06
1, 3-Butadiene	5.85E-06		6.10E-06	1.72E-06			
Chloroform		3.91E-08	2.83E-07		5.47E-06	1.08E-07	7.04E-08
Trichloroethylene		2.37E-08	6.98E-08		5.60E-08	4.63E-08	3.39E-09
Tetrachloroethylene	5.47E-08	7.78E-09	1.36E-08	1.35E-08	7.39E-09	7.44E-09	2.58E-09
Total	1.49E-05	6.45E-06	3.12E-05	3.87E-06	1.56E-05	6.40E-06	3.15E-05

주) KIST 용역보고서

여천공단의 비발암물질에 대한 초과발암 위험도

구 분	남수	잣등	삼일	소호	화치	평여	창촌
Styrene	2.94E-02		7.50E-04	9.43E-04			
Trichloroethane	1.85E-04	1.10E-04	1.40E-04	1.30E-04	1.34E-04	1.10E-04	8.50E-05
Toluene	8.32E-02	4.04E-03	4.74E-02	9.86E-03	1.59E-01	3.94E-02	1.26E-02
O-Xylene	2.13E-01		5.59E-02	1.57E-02	1.45E-02	1.27E-02	
M-Xylene	4.20E-02	2.77E-04	9.51E-03	2.36E-03	3.01E-03	2.56E-03	8.13E-04
P-Xylene	5.54E-01	1.18E-02	1.94E-01	1.05E-01	1.60E-01	1.22E-01	3.92E-02
Ethylbenzen	6.07E-03	1.64E-04	5.20E-03	8.76E-04	1.23E-03	9.88E-04	4.18E-04
합 계	9.28E-01	1.64E-02	3.13E-01	1.35E-01	3.38E-01	1.78E-01	5.30E-02

주) KIST 용역보고서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염화탄소, 벤젠, 1,3-부타디엔의 농도는 10만명당 한명의 사망률을 기록할 수 있는 농도를 초과했으며, 스티렌의 농도는 발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치를 몇몇 지역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기준물질의 오염농도 측정결과 94년 4월14일 삼일동에서 부유분진 농도가 310ug/m3로 환경기준치 300ug/m3을 초과했다.

또 묘도 온동마을의 경우 부유분진 농도가 196ug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상암동 259ug/m3, 남

수마을 225ug/m³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암동과 남수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산화질소(상암동 106ppb, 남수 134ppb)와 오존농도(월하동 38ppb, 상암동 32ppb)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남수와 삼일, 잿등마을은 벤젠, Carbon Tetrachloride 등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일반인이 20년이상 노출될 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 진동

15개 주요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일반거주지역 소음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화치마을의 주간소음과 상암동의 주간소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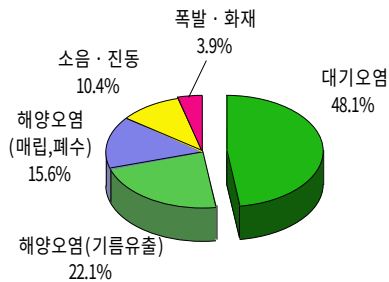
이 가운데 공장소음으로 주야간 소음치가 허용기준치보다 평균 10dB이상 초과한 주거지역은 주삼동 해지마을, 남수동 남수교회 앞, 중흥동 철로밑, 두암마을 두광단열 앞 등 4곳이다.

또 15개 주요지점 중 삼동경로당 앞이 주야간 소음치가 큰 편이며 다른지역에서는 주간보다 야간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미국 EPA의 저니오염 기준(1993)

중금속(mg/kg dry base)								추 출 물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철	납	셀레늄	아연	노말렉산
3	6	25	25	17,000	40	1	90	1,0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유형별 환경오염 피해분쟁 발생현황



주) KIST용역보고서

공장소음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동중단 후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설치돼 있는 Flare Stack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특히, 월성마을의 경우 Flare Stack이 매우 가깝게 설치돼 있어 굉음발생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함께 대형화물 수송차량에서 발생시키는 도로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삼동경로당 앞, 화치마을, 월하동 마을회관 앞, 삼일동 동사무소 등도 기준치를 넘고 있다.

해양오염

해수내 중금속량이 다른 연안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중금속 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높아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양만 묘도 안쪽의 수질은 환경부가 설정한 해역환경기준상 3등급에 해당하고 묘도 바깥쪽도 2~3등급 수준이며,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수은이 광양만 안쪽 해수에서 0.286ppb 검출됐다.

또 크롬, 비소는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가 제기된 시화지구를 제외한 여타 연안에 비해 가장 많은 량이 검출됐다.

이 때문에 광양만에 87년 당시 채집된 다모류가 총 58종 656개체m⁻² 였으나, 현재는 41종 96개체 m⁻²로 나타나 저서동물 군집이 전반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환경 위축으로 정상적 어업환경일 경우 가구당 연평균 121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현재는 75% 수준(9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어장환경의 악화로 정상적 환경일 때의 38%수준의 어업생산액을 보이고 있다.

전체 66개기업 중에서 폐수량의 97%를 발생시키는 33개기업은 자체처리를 한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공장은 묘도 앞바다로 배출해 해양오염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천공단의 소음 측정치(주거지역 기준)

(단위 : Leq, dB(A))

번호	측정지점	주야	기준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	평균	차이
1	주삼동 삼동	주	55	62.50	61.75	65.25	63.17	8.17
	경노당 앞	야	45	53.20	55.10	55.40	54.57	9.57
2	주삼동 해지마을	주	55	71.15	68.38	68.48	69.34	14.34
	회관 앞	야	45	62.20	59.70	62.20	61.37	16.37
3	월하동	주	55	68.60	70.53	68.88	69.34	14.34
	LG공장 앞	야	45	67.45	69.85	66.40	67.90	22.90
4	화지동	주	55	51.60	49.43	57.13	52.72	-2.28
	공터 앞	야	45	41.95	57.45	51.70	50.37	5.37
5	월하동	주	55	61.35	56.05	57.95	58.45	3.45
	마을회관 앞	야	45	55.70	52.70	51.80	53.40	8.40
6	남수마을	주	55	63.48	63.88	62.43	63.26	8.26
	남수교회 앞	야	45	56.45	57.65	51.15	55.08	10.08
7	평여동	주	55	68.73	70.58	71.18	70.16	15.16
	한화종합화학 앞	야	45	68.05	67.80	69.00	68.28	23.28
8	삼일동 중흥마을	주	55	64.65	64.15	66.03	64.94	9.94
	LG석유화학 앞	야	45	61.65	61.60	62.00	61.75	16.75
9	삼일동 중흥동	주	55	69.05	64.43	63.25	65.58	10.58
	철로 밑	야	45	58.45	56.35	64.55	59.78	14.78
10	삼일동	주	55	58.00	57.53	59.58	58.37	3.37
	동사무소 앞	야	45	54.85	51.05	47.55	51.15	6.15
11	두암마을	주	55	72.45	68.73	68.55	69.91	14.91
	두광단열 앞	야	45	64.95	61.60	58.30	61.62	16.62
12	두암마을	주	55	58.08	55.40	54.07	55.85	0.85
	경노당 앞	야	45	51.40	53.40	48.50	51.10	6.10
13	묘도동가는	주	55	60.80	54.05	56.13	56.99	1.99
	선착장 앞	야	45	53.60	47.15	48.75	49.83	4.83
14	낙포동 남해화학	주	55	72.43	72.13	71.78	72.11	17.11
	출하장 앞	야	45	65.80	69.95	68.70	68.15	23.55
15	상암동 당내	주	55	48.70	44.95	46.15	46.60	-8.40
	논 가운데	야	45	44.95	53.45	42.05	46.82	1.82

주) KIST 용역보고서

중금속 및 유해물질들은 일반적 수질처리로 효율적인 제거가 어려운 만큼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함께 모아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각 공정별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특수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생산공정에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농작물 피해

공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벼농사의 경우 수확감소율이 증흥동 신대마을에서 최고 28% 가량 나타났고, 콩은 평여동 남수마을에서 33%, 맥보리는 호명동 원호명마을에서 27%, 쌀보리는 상암동 작음마을에서 28%로 감수율이 높았다.

오염물질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상승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단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될 경우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된다.

따라서 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적극 억제해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차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량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주대책

조사결과 이주대상 지역은 10개 법정동의 4071가구, 1만5268명으로 매우 큰 규모이다.

여천공단 주변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동사무소가 위치한 주삼동과 중흥동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천공단의 VOC 분석결과

(단위 : ppb)

위치	구분	에틸렌	프로판	프로필렌	이소부탄	부탄	부텐	펜탄	헥산	벤젠	3메틸헥산	헵탄	톨루엔	옥탄	에틸벤젠	P-X	SM	O-X	노난	124 TMB
상암	조사단	-	0.039-	-	0.095-	-	-	-	0.043-	0.010-	0.075-	0.236	0.039-	0.047-	0.003-	0.002-	0.069	0.009-	2.267	0.032-
	1차2회		0.068		0.100				0.060	0.015	0.118		0.014	0.173	0.007	0.056		0.024		0.974
중흥	조사단	-	0.370	-	0.198-	-	-	-	0.040-	0.005-	-	-	0.017-		0.008-	0.007-	0.207-	0.009-	0.038	0.033-
	1차2회				0.419				0.958	0.010			0.018	0.083	0.009	0.011	1.288	0.010		0.045
	KIST	-	7.968	-	1.011	-	-	-	0.229	1.696	-	-	2.171	-	0.226	0.343	0.271	0.364	-	-
	4회		2.69-		0.274-				0.080-	0.358-			0.855-		0.158-	0.091-	0.070-	0.116-		
화치	조사단	-	0.420-	-	0.697-	-	-	-	0.086	0.054-	0.026-	0.371	0.018-	0.074	-	0.062	0.018	0.011-	0.037-	0.029-
	1차2회		0.676		3.213					0.136	0.083		0.063				0.245	0.091	3.521	2.799
	KIST	-	3.523	-	0.267	-	-	-	0.543	1.592	-	-	11.666	-	0.398	0.349	47.542	0.353	-	-
	2회		1.312-		0.243-				0.092-	1.251-			6.059-		0.312-	0.207-	3.064-	0.215-		
남수	조사단	-	0.092-	-	0.161-	-	-	-	0.094-	0.029-	0.096-	1.131-	0.256-	0.062-	0.028-	0.056-	0.162-	0.091-	0.171-	1.663-
	1차3회		2.257		21.345				0.317	0.502	1.145	2.274	0.5849	1.185	0.080	0.308	1.173	2.899	11.893	5.720
	조사단	2.367	0.887	0.263-	0.140	1.841	2.277	2.799	0.761-	0.103-	2.229	-	0.354-	0.063-	0.145-	0.252-	0.067-	0.113-	0.075-	0.090-
	2차4회			0.425					1.987	0.932		-	1.303	0.069	0.196	3.564	0.813	0.475	0.122	0.207
	KIST	-	3.052		0.116	-	-	-	0.812	2.909	-		12.788	-	1.918	0.942	10.644	3.617	-	-
	2회		0.116-		0.160-				0.567-	0.584-			10.110-		0.699-	0.334-	8.247-	0.668-		
			5.987		2.160				1.056	5.233			15.465		3.137	1.549	13.014	6.565		

1. 조사단 조사시기 : 1차/ 1996. 7. 15~16, 2차/ 1996. 7. 23~27

2. 시료채취방법 및 시간 : 환경부 조사단 / 흡착튜브에 1~4시간 연속 포집, KIST / 2ℓ 진공케니스터(canister)로 순간 포집

3. 칸내 값은 평균 범위(최소-최고)임.

자료> 환경부 국회보고서

여천공단 주민건강피해 조사결과

(단위 : %)

지 역	조사기간	지역사회 진단 실시현황				발견된 질환자 현황					유병률 (%)
		가구수	인구수	30세이상 인구	고혈압	당뇨	간질환	뇌졸중	기타	소계	
여천시(공단주변 4개동)	1991 ~ 1995	4,585	17,352	8,040	374	109	22	16	159	680	8.46
여천군	1992 ~ 1996	15,143	50,668	30,650	923	357	164	26	698	2,168	7.07
순천시(해룡면)	1992 ~ 1996	2,120	6,153	1,845	115	25	-	-	6	146	7.91

주> 환경부 국회보고서

인구 감소지역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반면, 인구증가 지역인 주삼동의 주삼은 국도 17호선과 공단진입로의 교차점 부근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결과로 판단된다.

삼일동은 공단내에 위치하지만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인구 보다는 공단과 관계있는 도시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이주대상지역의 인구증가를 방지하는 것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이주대상지역의 총 보상면적은 5610만5399m²이며, 이중 임야가 4085만9480m²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논 635만4991m², 밭 525만4420m², 기타 235만3676m², 대지 128만2832m² 등의 순이다.

전체 10개동을 모두 이주하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68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5357억원, 간접보상비가 1425억원, 이주대책비가 81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보상비 분담방안으로는 공단규모에 비해 원주민이 받는 혜택은 사실상 미약한 반면, 국가는 세 수입 증대 등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 경제적 수혜집단의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주방법으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집단이주방법과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개별보상 후 이주시키는 개별이주방법이 있다.

여천공단 지역주민의 질환별 수진률

(단위 : %)

지 역	1994				1995			
	호흡기계	피 부	순환기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피 부	순환기계	근골격계
여천시	31.0	5.9	2.1	3.8	22.0	4.0	2.5	2.5
주삼동	26.3	6.4	2.0	5.5	19.0	3.9	2.3	4.4
삼일동	33.1	7.0	2.3	5.1	29.0	5.8	2.7	3.8
묘도동	32.4	5.4	1.5	8.2	43.6	3.5	1.8	5.8
상암동	22.5	5.3	2.9	7.9	18.2	2.9	2.4	6.9
쌍봉동(대조)	29.5	5.4	2.3	3.2	18.0	3.3	2.4	1.8

주> 환경부 국회보고서

여천공단의 대기오염(황화수소) 분석결과

지역	구분	환경부 조사단		KIST		비고
		결과(ppb)	측정횟수	결과(ppb)	측정횟수	
중흥	1차	0.543(0.17 ~ 1.02)	3회	1299(12 ~ 3843)	12회	-분석방법 메틸렌블루법
	2차	9.768	1회			
상암	1차	0.361(0.292 ~ 0.430)	2회	340(19 ~ 1418)	12회	
	2차	1.064(1.049 ~ 1.079)	2회	215(150 ~ 329)	3회	
화치	1차	1.280	1회			
	2차	3.846	1회			
창촌		-		222(67 ~ 495)	12회	
화장		-		121(38 ~ 213)	12회	

* 조사단 조사일지 : 1차 '96. 7.15 ~ 7.16, 2차 '96. 7.23 ~ 7.26

자료> 환경부 국회보고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주대상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85.5%가 집단이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개별이주는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실태조사

환경부의 실태조사는 KIST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96년1월 작성)가 마무리된 이후 6개월만에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7월27일로 KIST의 용역결과가 발표된 7월22일보다 5일뒤에 이뤄져 조사기간과 발표시점이 차이를 보였다.

조사단 구성은 국립환경연구원, KIST, 환경기술개발원 등 7개기관 33명으로 대기조사반 등 5개반이 편성돼 여천공단 주변 10개동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에 들어갔다.

KIST의 용역결과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용역보고서상 조사내용이 미흡하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조사와 단기적인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조사계획」 수립이 조사배경으로 제시됐다.

조사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반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을 비롯 배출공정, 배출원인 조사와 배출이 예상되는 공장 주변마을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측정을, 수질조사반에서는 배출기업의 폐수특성, 해수중 수은 등 중금속 분석, 하천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 등을 조사했다.

또 유해물질조사반은 유독물 공장현황,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대책, 사고시 관계기관의 대처 상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주민건강피해조사반은 역학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했다.

대 기

배출원 조사시 예상 배출오염물질 가운데 벤젠, 부타디엔, 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 등 탄화수소류 20종과 황화수소, 모노에틸렌아민 등 악취물질 10여종을 선택, 조사했다.

이 결과 주요 배출원은 원료 및 제품 등의 저장 및 출하시설과 복잡한 화학반응공정의 각종 안전밸브 및 접속부위, 펌프 이음새, 시료채취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회수설비나 별도의 방지사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각 공장별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 중이다.

1차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황화수소는 평여동에서 1.064ppb, 화치동 1.280ppb, 중흥동 0.543ppb, 상암동 0.361ppb로 KIST의 결과(남수 215ppb, 중형동 1.299ppb, 상암동 340ppb)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중흥동 0.206ppb, 상암동 0.063ppb로 KIST의 결과(중흥동 33ppb, 상암동 29ppb)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이소부탄 등 14종이 검출 확인됐으나 이소부탄을 제외하고는 KIST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분석결과, 황화수소는 중흥동에서 가장 높은 9.768ppb로 1차조사시의 최고치(1.02ppb)에 비해 약 10배 높았고, KIST결과 (3.843ppb)보다 낮았다.

불화수소는 남수에서 2.083ppb로 나타났으나, KIST의 보고서 (평균 19bbp)보다는 낮게 집계됐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이소부탄, 벤젠 등 18종이 검출확인 되었다.

남수마을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1차 결과(벤젠 0.029~0.502, 톨루엔 0.256~0.585, p-자일렌 0.056~0.308ppb)에 비해 약 2~10배 (벤젠 0.103~0.932, 톨루엔 0.354~1.303, p-자일렌 0.252~3.564ppb) 높게 나타났다.

수 질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중에는 BOD 26.44 mg/ℓ, 구리 0.044 mg/ℓ, 카드뮴 0.01mg/ℓ, 시안 0.049mg/ℓ 등이 검출됐으나 방류수 중에서는 BOD 등 일반항목은 기준이내, 중금속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시안이 0.011 mg/ℓ 검출되었으나 기준치(1mg/ℓ 이하) 이하로 나타났다.

하천수질의 경우, 1차 채취시료에서는 남수천 및 중방천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1mg/ℓ)를 초과(남수천 0.011mg/ℓ, 중방천 0.028mg/ℓ)해 검출됐다.

기타 항목은 대체로 수질환경기준(5등급 0.01mg/ℓ) 이내였으며, 2차 채취시료에서는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지점에서 납이 미량(0.030~0.087mg/ℓ) 검출됐으나 기준치(0.1mg/ℓ)이내로 판명됐다.

간이상수도 수질은 시료채취 9개 지점중 남수마을 등 7개지점의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8개지점에서는 일반세균이 260~3만5000mg/ℓ로 기준치100mg/ℓ을 초과했다.

묘도동 은동마을 시료에서는 염소이온이 179mg/ℓ 및 증발잔유물이 673mg/ℓ로 기준치(염소이온 150mg/ℓ 이하, 증발잔유물 500mg/ℓ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조사에서는 수은, 카드뮴, 구리 및 납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수 수질은 대체로 1~2등급(생활환경보전 항목 중심)이내로 판명됐다.

유해물질

조사대상 32개기업 중 등록사항 미이행 등 12개기업(18건)의 유해화학물질 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공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된 공장을 LG칼텍스정유를 비롯 금호석유화학, 삼남화학, 여수화력, 호남화력 등 9개기업으로 정기적(년 1회)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은 LG칼텍스정유 등 27개소에서 황산 등 11종을 저장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유해물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2개로 나타났다.

공장안전관리 실태는 여수지방노동사무소 등 5대기관 합동으로 96년 6월20일~8월19일(2개월간) 공

단내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중이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여천소방소의 화재경계지구 소방 점검계획에 따라 96년 6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중이다.

주민 건강피해

공단지역 주민건강 조사사업(80~94년)의 일환으로 여천지역을 5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총 증상호 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4~95년 여천시보건소 진료환자 4777명에 대한 질병분류 결과 근골격계 질환(41%), 호흡기계 질환(21%), 순환기계 질환(9%), 피부질환(7%) 순으로 나타났다.

91~95년 여천공단 4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방문보건사업의 성인병자료 조사결과, 유병률은 평균 8.46%로 순천시(해룡면) 7.91%, 여천군 7.07%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공단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사망자의 사인별 특성, 세부적인 질병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조사중이다.

종합검토

조사결과 공단지역내에 위치하는 월하, 평여동 및 중흥동 일부지역은 공장에 근접하여 안전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하동의 일부주택은 한화종합화학의 저장시설로 부터 직선거리 200m, 부지경계로 부터 70m에 불과하며 검출확인된 일부 유해 대기오염물질은 무풍, 기온역전, 안개 등 기상조건에 따라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저장, 운반, 취급, 반응 등 배출원인 및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출억제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공정관리와 함께 공정개선, 방지시설 설치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경우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역학조사를 포함한 유해성 평가는 문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특성, 오염현황, 지역주민의 상병자료, 사인별 사망률 등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공단내 주민에 대하여 종합검진과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천공단의 오염저감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 △오염물질의 확산 및 영향 예측을 위한 모델링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한 유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 등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배경의 상이성

여천공단의 환경오염문제는 KIST의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직접적인 시발점이 됐다.

96년 7월22일 KIST의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평가 결과 설명회」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듣고보니 30년동안 묻어온 한이 풀리는 것 같다』는 공단 주민의 말처럼 여천공단의 문제는 KIST의 용역보고서를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의 수면밑 배경과 발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입주기업 대부분은 공단 조성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산업행정과 계획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울산·온산공단에서 비싼 경험을 치른 정부가 지금까지 여천을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방자치 이후 급격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물론 KIST의 용역보고서처럼 오염원이 공단내의 공장임은 그 정도를 떠나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단조성 당시부터 불씨로 지적되어온 공단내 거주 인정과 그에따른 후유증 및 관선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비롯되고 있는 끊임없는 행정갈등이 증폭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81년 5공정권이 들어선 이후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 공업지역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규제완화하여 공단내 이주를 유도했던 정부의 근시안적 행

정이 최근의 엄청난 문제를 발생케한 불씨로 작용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천공단을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정부가 주민의 이주대책을 한낱 땀방식의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KIST와 환경부의 환경오염도 차이, 여천시와 정부의 접근방법 및 상이한 대책 등은 여천공단의 환경오염문제를 사회문제로 비화시키는 동기와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즉, KIST는 93년6월부터 2년4개월간에 걸쳐 여천공단의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 『집단이주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96년 7월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환경부 주관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도 오염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근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울산과는 달리 문제제기 이후 집단이주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외형상으로 빠르게 매듭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결론 도출과는 별개로 여천공단의 오염문제는 주민, 입주기업, 여천시, 중앙정부가 각각 다른 입장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원인자와 수해자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입주기업들은 여천공단은 조성 이전부터 국가공단으로 지정, 정부가 정한 기준과 규제를 100% 이행하여 입주 또는 공장을 건설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환경과 관련한 정부규제에 성실히 따라왔다는 점을 강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100% 입주기업에게 지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은 KIST의 용역결과에 대해 상당부분 의혹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전술에 KIST의 용역보고서가 꿰어맞추기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에반해 주민과 여천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국가공단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중앙정부와 해당 입주기업에 있다』며 원인자이면서 수해자인 중앙정부가 이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천시는 논리적 근거로 여천공단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조세(95년 1조3200억원) 가운데 90%가 넘는 1조3000억원이 국세로 빠져나가 최대 수해자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세율상의 현실적 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부를 주축으로 여천공단 주변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재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KIST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수치상 너무 높게 나타났다는 판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집단이주(10개동 1만5000여명)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례로 여천 앞바다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KIS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상당부분 환경문제 해소에 앞장서 왔으나 오염물질의 철저한 단속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입주기업과 지방정부, 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와 인식차이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사이에 두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1차원」에서 조금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천공단의 환경오염문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여론화돼 있는 이주문제가 환경차원을 넘어 안전성 시비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인근주민의 이주가 환경문제가 아닌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힌 만큼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91년 이주가 마무리된 울산공단(국비보조 1981억원)과 비교하여 정부의 책임분담이 여론화 내지는 국회 상정될 경우 지역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여천공단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를 단순히 지방정부와 공장의 문제로 국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